

# 김동연 “일자리, 경제정책 제1목표”

### “금융위기 이후 일자리 가장 부진… 새정부, 곤혹스러워 세수, 5년 동안 당초 계획보다 60조원 이상 들어올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국가재정포럼’에 참석해 “재정은 당시 사회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어떤 때는 재정 확대가 필요하고 어떤 때는 재정건전성에 중점을 뒀던 것은 정책이 필요한 것 같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우리의 경제 여건상 확대재정 정책이 불가피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우선 사회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분배나 양극화, 계층이동 단절 문제, 일자리 문제, 사회구조 개혁 등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부총리는 “금융위기 이후 일자리 면에서 가장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

다. 새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이기도 하다”라며 “정부가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펴서 뒷받침 해줄까하는 것이 하나의 큰 숙제”라고 토론했다.

양극화 문제도 거론했다. 김 부총리는 “1분기 소득분배 모습이 상당히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 당혹스러워 했다”며 “사회구조상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모습에서 정책적인 역할 집중 필요한 때”라고 판단했다.

경제활력 제고도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부총리는 “역동성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혁신성장이 필요한 상황에서 민간과 시장에서 주로 해야 하지만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하는 게 있다”며 “재정역할이 제한적이지만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부분의 투자에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수 상황도 나쁘지 않다고 분석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19조원 더 들어왔다”며 “세수여건은 저희 예측으로 내년도에 비교적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 내후년 이후로는 면밀히 보고 있지만 조금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수여건 호조가 중기에도 계속될 것인가는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며 “중기재정은 현재 상황에서 보면 세수가 5년 동안 당초 계획보다 60조원 이상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중기적으로 확대재정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몇 퍼센트 오르느냐가 아니라 적극적 재정정책의 내용”이라며 “어떤 사업은 한 번 제도로 예산이 들어가면 항구적으로 들어간다. 확대재정 통해서 들어가는 사업이 제도 도입에는 신중해야겠다”고 지적했다.

내년 예산에서 중점투자하려는 3가지도 소개했다. 김 부총리는 “사회적 구조적 문제 해결, 국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 역동성을 살리기 위한 혁신성장 관련 사업 등에 중점 투자하겠다”며 “공통 특징은 직간접적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국가재정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로 일자리와 연결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의 여러 경제정책의 모든 제1목표는 ‘일자리’이고 재정도 거기서 작동하겠다”라며 “확대

재정을 강조한다고 당초 우선순위가 떨어지거나 조정이 필요한 지출을 그대로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지출구조 조정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읍 황토현농협, 폭염·가뭄 피해예방에 적극 지원

정읍 황토현농협(조합장 옥익호)은 유례없는 폭염과 가뭄에 고통을 받고 있는 3,500여 조합원을 위하여 피해예방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가뭄피해예방 지원으로 전체 영농회에 자동펌프 1대씩을 전달하였고, 지점 3곳을 포함한 4개 사무소 앞에 무더위쉼터를 개설하여 금융업무 및 농자재 구입 차 농협을 방문한 조합원과 고객을 위하여 그늘막과 얼음생수를 비치하여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물이 불편한 고령농가의 눈에 살수차를 동원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등 폭염과 가뭄에 적극 지원하였다.

옥익호 조합장은 “이번 지원으로 조합원들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하고 “황토현농협에서는 앞으로도 항상 농업인 조합원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NH농협, 'KT 수퍼할부카드' 출시... 통신요금 월 최대 1만7천원 할인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NH농협카드가 소비자들의 통신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KT와 제휴한 'KT 수퍼할부카드'를 최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휴대폰 구매시 KT 수퍼할부카드를 결제하면 최장 36개월까지 할부로 구매 가능한 '라이트 할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이트 할부 선택시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 1만1천원, 7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만7천원을 할부 이용 기간 동안 매월 통신요금에서 할인해 준다.

또한 라이트할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KT통신요금 자동이체만 신청할 경우에도 전월 실적 30만원이상 이용 시 9천원, 70만원



이상 이용 시 1만 5천원을 매월 통신요금에서 할인해 준다.

이밖에도 커피, 베이커리, 아이스크림 가맹점 이용 시 10% 청구 할인 혜택과 전국 주요놀이공원 현장 할인, CGV 영화관에서는 1천원 현

장할인과 1천원 청구할인을 더해 2천원의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편 NH농협카드는 KT 수퍼할부카드 출시를 기념해 올해 말까지 KT라이트할부를 신청하고 전월실적 30만원이상 이용한 경우 기본 할인 혜택에 추가로 매월 5천원을 24개월 동안 캐시백 해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카드 발급은 전용 직통전화(1644-2866)또는 전국 NH농협 영업점 및 NH농협카드 홈페이지·모바일 웹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조건 및 카드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H농협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 공정위 “검찰 수사결과 겸허히 수용... 20일 쇠신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지철호 부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 12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히며 오는 20일 공정위 차원의 쇠신방안을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날 퇴직 공무원들의 기업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김학현 전 부위원장, 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노대래 전 위원장, 김동수 전 위원장, 지 부위원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기업 16곳을 압박해 퇴직 간부 18명을 채용하게 하는 등 민간

기업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가 조직적으로 퇴직자 취업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위원장, 운영지원과장 등 간부들이 기업 고위관리자를 직접 만나 채용 기업, 대상자, 시기, 기간, 급여, 처우, 후임자 등을 결정했고, 이렇게 재취업을 도와준 퇴직 간부들은 연간 최고 3억 5000만원에 이르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롯데백화점 전주점 사롯데 봉사단원 15여명이 16일, 송천동에 위치한 송천정보통신학교를 방문해 '사랑과 정성의 삼계탕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 '사랑과 정성의 삼계탕 나눔'

롯데백화점 전주점(점장 조환섭) 사롯데 봉사단원 15여명은 1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주 송천동에 위치한 송천정보통신학교(교장 오연호)를 방문해 '사랑과 정성의 삼계탕 나눔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는 롯데백화점 전주점 점장을 비롯해 자원 봉사자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말뚝을 맞아 정성스럽게 준비한 삼계탕(120인분) 점심식사와 후식으로 계절 과일등을 제공하여 유난히 무더운 여름을 지내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보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조

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행사를 진행하였다.

롯데백화점 사롯데 봉사단은 백화점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구성된 직원 자체 봉사단으로 매월 독거노인 및 결식아동,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방문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롯데백화점 전주점 조환섭점장은 “입추가 지났음에도 계속되는 무더위에 지친 청소년들이 건강히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복날 건강식인 삼계탕 식사 지원을 기약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NH스마트뱅킹 로그인 이벤트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NH스마트뱅킹'을 이용하는 농축협·농협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9월 7일까지 스마트뱅킹 로그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NH스마트뱅킹'을 로그인 시 이벤트 응모권 1매가 부여되고, '간편뱅킹'을 통해 로그인 시 응모권 1매를 추가로 부여된다. 또한, 처음부터 '간편뱅킹'으로 로그인 시 한 번에 응모권 2매가 부여된다. 이렇게 부여받은 응모권으로 'NH스마트뱅킹' 및 '인터넷뱅킹'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 가능하며, 응모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700명에게 '아이폰8 RED' (2명), '롯데시네마 영화에매권' 2매(100명), 'CU 상품권 5천원권' (588명)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농협 관계자는 “NH스마트뱅킹을 이용해주시는 모든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해당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모든 고객들이 더욱 쉽고 간편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바일뱅킹 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